‘광주교육 현안 해결되나’

장휘국 광주교육감-김상곤 교육부 장관 면담

예술고 국립 전환 · 교육청 이전 등 4가지 논의

장휘국 광주시교육감이 17일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광주교육 현안에 대한 지원을 요청했다. 장 교육감은 이날 오후 세종시 교육부를 방문해 김 장관과 면담을 가졌다.

이날 장 교육감은 광주예술고 국립화 및 국립 예술중 설립, 광주시교육청 청사 이전, 광주학생진로교육원 설립, 광산교육지원청 원상 회복 등 4가지 현안을 설명했다.

현재 공립인 광주예술고는 광주 북구 매곡동 옛 전남도교육청 부지에 이전할 예정이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국립으로 전환하고 국립 예술중학교도 함께 설립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988년 개청 이후 조직과 인원이 증가하면서 사무실, 회의실, 주차공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는 광주시교육청 청사도 이전이 필요하다.

개청 당시는 2국 1담당관 8과 142명이었으나 현재는 2국 3담당관 10과 412명으로 증가했다. 현 청사는 구조적인 안정성 문제로 증축이 불가능해 청사를 이전해야 하는 상황이다.

신청사 예정부지로는 광주도시공사가 소유하고 있는 서구 치평동 상무소각장 인근 부지를 검토중이다.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구가 급증한 광산지역 교육지원청 원상 회복도 수 년간 요구하고 있는 현안이다.

광산교육지원청은 1998년 전남 광산군이 광주시에 편입되면서 서부교육지원청으로 통합됐으나 현재 서부교육지원청 관할 학생 수가 동부교육지원청의 두배를 넘어서 교육의 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다.

장 교육감은 “광주교육 현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자, 김 장관이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며 “교육분야 비정규직 문제도 잘 살펴봐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과 장 교육감은 광주서중 동창으로 각각 경기교육감과 광주시교육감에 당선돼 교육혁신을 함께 추진해 왔다.

조인호 기자

전남도의회 6명 의원, ‘우수 의정대상’ 수상

전라남도의회 김기태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박금래 · 서정한 · 이창호 · 임흥빈 · 조상래 의원이 17일 대전 호텔ICC에서 열린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전남도의회는 김기태 안전건설소방위원장과 박금래 · 서정한 · 이창호 · 임흥빈 · 조상래 의원이 17일 제4회 우수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 의정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김기태 의원(순천1)은 안전건설소방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토목전문가로서 지역 건설업체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종합 · 전문건설협회를 방문, 설계원가 현실화와 대형공사 분리발주, 도내 업체 수주기회 확대 등 상생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등 지역경제 살리기에 앞장서 왔다.

박금래 의원(고흥2)은 농림수산과 해양항만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으로 각종 지원 시책을 발굴하고 대안제시에 앞장서 왔으며 특히 고령화에 접어든 농어촌의 현실을 반영한 노인복지 관련 조례와 농어촌 발전을 위한 조례 등 35건의 의안과 건의 및 결의안을 발의했다.

서정한 의원(여수3)은 도민 교육과 문화역량 강화를 위해 ‘전라남도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조례’를 발의하고 유기화학물질 배출 저감대책과 여수국가산단 발암물질 실태 파악 및 대책 등을 촉구하는 등 도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노력한 공로가 컸다.

이창호 의원(구례)은 주민생활과 밀접한 도로와 주택, 하천, 방재, 소방시설 등 도민의 귀중한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해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비롯해 46건의 조례안과 결의 및 건의안 등을 발의했다.

임흥빈 의원(신안1)은 3선 의원으로 ‘전라남도 스포츠 진흥 조례’와 ‘섬의 날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등 36건의 조례안과 건의안을 발의하는 등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전남도 위상제고에 크게 기여했다.

조상래 의원(곡성)은 농업분야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박한 지식으로 각종 시책 발굴에 앞장서왔고 농어업 주요 현장 방문을 통해 대안을 마련해 중앙정부를 상대로 농업 · 농촌 발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전개해 왔다.

광주 학동2구역 주거 환경개선사업 추진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공동주택 건립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지역 주민들 간 혼선을 빚었던 광주시 동구 학동2구역이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돼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광주 동구는 학운동주민센터 인근을 대상으로 추진 중인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난 13일 광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의결돼 정비구역으로 최종 지정됐다고 17일 밝혔다.

학운2구역은 2014년 6월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사업비 60억원(국비 30억 · 지방비 30억)을 확보하고 지난해 3월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 · 고시됐다.

그러다 지난해 8월 (가칭)학동미량지역주택조합추진위원회가 동일 사업구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추진하면서 지역주민과 조합원 사이에 혼선이 발생하는 등 논란이 일었다.

동구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에서는 공동주택 건립이 불가하다는 사실을 지역주택조합 측에 여러 차례 안내했으나 조합 측은 토지사용권 확보가 현실적으로 어려움에도 조합원을 모집하고 주택 홍보관을 오픈하는 등 사업추진을 강행했다.

이에 동구는 지역주민과 조합원 의견수렴을 위해 지난 4월20일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최종 결정했다.

김성환 동구청장은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지역주택조합과의 관계로 추진이 다소 늦춰졌으나 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서 탄력을 받게 됐다”면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컸던 만큼 기반시설에 편입되는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조속한 손실보상과 기반시설정비 공사를 추진해 행복한 정주여건 조성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학운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사업비 60억원을 들여 주거환경이 열악한 학동미량마을에 도로 8개 노선(1368m), 주차장 3개소(1108㎡), 소공원 2개소(203㎡)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이다.

최남규 기자

동구,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우수기관

광주 동구가 행정자치부 ‘2017년 지방재정 신속집행 추진실적 평가’에서 1/4분기 최우수상을 수상하며 6천만 원을 확보한데 이어 상반기 평가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5천만 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모두 1억 1천만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받게 됐다.

이번 평가는 전국 243개 지자체를 특 · 광역시, 도, 시, 군, 구 등 5개 그룹으로 나눠 진행했으며 기초자치단체는 신속집행 실적, 예산규모 가중치 등을 기준으로 점수를 매겼다.

동구는 ▲일자리 창출 ▲서민생활 안정 ▲SOC사업 등 현안사업을 중심으로 그동안 추진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도 재원확보를 통해 집행률을 높이는 등 신속집행 추진에 적극 나섰다.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 여름독서교실 운영

광주 서구 어린이생태학습도서관이 여름방학을 맞아 어린이들이 책 읽기의 즐거움을 발견하고, 도서관 이용 생활화에 도움을 주기 위해 오는 27일부터 29일까지 제95회 여름독서교실을 운영한다.

생태계와 환경의 소중함을 느낄 수 있도록 ‘갯벌이 좋아요’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독서교실에는 광주 지역 초등학생 30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다.

프로그램에 참가한 어린이들에게는 수료증을 수여하고 우수 학생은 국립어린이청소년 도서관장상, 한국도서관협회 광주전남지구협의회장상 등을 시상할 예정이다.

남구, 아파트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

광주 남구는 열악한 근무환경으로 일터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파트 경비원의 처우 개선을 위해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안’을 마련, 본격 추진에 나선다.

17일 남구에 따르면 이번에 마련된 ‘공동주택 경비원 근무환경 개선 추진안’은 고용안정과 건강한 일터 환경 조성, 아파트 경비원의 자긍심 고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비원의 근로기간 보장을 1년 이상으로 하고, 업체 변경시 고용이 승계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 10㎡ 남짓한 경비실 크기를 25㎡로 확대해 화장실과 탕비실, 냉 · 난방시설 등을 마련하고, 무인 택배함을 설치토록 해 아파트 경비원들이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북구,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눈길

광주 북구는 기업사랑운동을 통한 중소 · 마을기업의 기술 · 경영활동 지원을 강화, 청년층에게는 더 좋은 일자리 제공, 근로 취약계층의 권리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오는 18일 오후 2시에 광주디자인센터 4층 대회의실에서 ‘중소기업 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사업에 참여한 7개 기업의 CI · BI 및 패키지 · 포장 디자인 개발 중간과정 실적 및 계획보고서를 발표한다.

그리고 오는 18일에는 ‘2017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를 통해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도담도담커뮤니티(대표 장효선)와 사업약정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지원에 나선다. 또한 오는 20일에는 전남대학교 도서관 별관 지하 1층 취업강의실에서 고용복지플러스센터와 연계하여 청년 고용지원제도 안내와 맞춤형 취업정보 제공을 위한 ‘청년층 취업지원 설명회’를 개최한다.

광산구, 다중이용시설 방문 심폐소생 교육

광주 광산구는 지난 14일 우산동 무등산랜드에서 심폐소생술과 응급처치 시범 교육을 실시했다.

찜질방 이용 고객과 함께 한 교육에는 전남대학교병원 응급의료센터 전문가가 나서 이론 소개와 CPR인형을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 실습이 이뤄졌다.

광산구는 다중이용시설을 찾아가 심폐소생술 등을 교육하는 사업을 지난 2월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산구 보건행정과(960-8734)로 연락하면 교육 일정을 협의할 수 있다.

임형택 기자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재기자 모집합니다”

고흥·완도·구례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법인설립 ■기장대리
■양도상속증여 ■건설면허신청
■기업진단 ■외부감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토목설계>>도시계획
토목공사>>창업상담>>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월드노무법인
World Labour Corporation

▶노동법 기업컨설팅 ▶산재업무대리
▶급여체계 정비사 ▶징계(해고)자문
▶4대보험 무료대행 ▶노동부 지원금

노동부 옴부즈만위원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광주·목포 노동청 전문위원
대표/공인노무사 박정태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04 밀알신협 5층
Tel : 062)512-0336 H·P : 010-3624-0338